

내용증명

발신인 강용원

서울 서초구 방배대로 111, 101동 502호(방배동, 서래아파트)

수신인 오민한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7

1.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귀하의 사촌 형인 오국한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입니다. 당시 오국한은 본인에게 오국한 소유의 서울 관악구 신림로 115 지상 상가(2022. 4. 18. 자 채무 담보) 및 아버지 오철성 소유의 포천시 일동면 218 소재 임야(2022. 5. 18. 자 채무 담보)에 대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2. 그러나 오국한이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상황을 알아보니 설정 당시 시가 2억 원을 호가한다고 들었던 포천시 소재 임야는 시가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오국한이 2023. 3. 17. 그 소유의 신림동 상가를 귀하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주변 소문으로는 신림동 상가의 매도 전부터 오국한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위 신림동 상가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나일오 이야기도 들어 보니, 나일오 역시 2023. 3. 17. 당시에는 채무가 4,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그 뒤에 추가로 대여하여 현재 오국한에게 빌려준 대여금 합계가 채권최고액인 5,000만 원보다 많은 7,0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4. 주변에 알아보니 이러한 경우 제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위 건물의 소유권을 오국한에게 돌려놓거나 본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차용증 각 1부

2024. 9. 15.

강용원 (인) 元姜印容



본 우편물은 2024-9-15

제17146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서초우체국장

